

생일 선물

권오분
자유기고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선물 받기를 좋아한다. 아마도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선물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선물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 30여 년간 한결같이 생일 선물을 보내는 친구가 있다. 바로 초등학교 동창이다. 그 친구도 결혼하여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바쁜 중에도 가끔 편지를 주고 생일이면 초콜릿을 보내왔다.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좋아하지만 어려운 살림에 쉽게 사 먹게 되지 않는 것이 초콜릿인데도 그 친구는 해마다 초콜릿을 소포로 보내와 아이들은 그녀를 초콜릿 아줌마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500원짜리 초콜릿 두 개에 불과했으나 한 해 한 해 세월이 흐를수록 초콜릿의 개수도 한 개씩 늘어났다. 나는 초콜릿의 개수가 늘어나면 그녀의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증거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다. 초콜릿과 함께 언제나 반듯한 글씨체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가 들어 있어서 나를 부끄럽게 했다.

아이들은 자라고 초콜릿의 종류와 개수도 늘어갔다. 우편배달부 아저씨는 지난해에 배달한 물품을 기억하고는 “또 초콜릿이겠지요?”라며 기분 좋게 웃으신다. 어느 해부터인지 나는 초콜릿을 내 아이보다 우편배달부 아저씨에게 먼저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처음에 초콜릿을 받고 너무 좋아서 자랑했을 때 이웃 사람들은 “시골에서 서울로 초콜릿을 사서 보낸다니 우습네요. 그 우편 요금으로 사 먹는 게 낫겠구먼” 하고 말했다. 하지만 해마다 거르지 않고 소포가 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감탄하기 시작했고, 초콜릿은 그냥 초콜릿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고, 택배라는 배달 제도가 생기면서 초콜릿 보따리 속에는 미역이 들어 있을 때도 있고 떡이 들어 있기도 했다. 물론 서울은 모든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만큼 흔하지만 우편배달부나 택배 회사 직원을 통하면 그것은 그냥 물건이 아닌, 보내는 사람의 사랑이고 정성이고 기도가 된다.

올해도 내 생일은 어김없이 다가왔고, 마침 생일날에 딸의 친구 결혼식이 대전에서 있어서 온 가족이 결혼식에 다녀와 보니 소포가 와 있었다. 포장을 풀어보니 가짓수는 줄었지만 예전에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 먹던 과자들과 밝은 초록빛의 나물 봉지, 시루팥떡이 들어 있었다. 그것을 보고 어른이 다 된 우리 아이들은 엄마 몰래 학교 앞 문방구에서 불량식품 사 먹던 것이 기억난다는 등, 그때가 엇그제 같다는 등 “어머나, 어머니”를 연발하면서 즐거워했다.

아직 얼음이 채 녹지 않은 초록빛 나물 봉지를 들여다보니 어디에선가 봄이 숨어 있다가 까꿍 하며 나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아주 어린 뽕나무 순을 데쳐서 얼린 것이었다.

친구에게 인사차 전화를 걸었더니 친구는 밝은 목소리로 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오른손을 다쳐서 직접 꾸러미를 챙기지 못해 이웃 아줌마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서 편지도 쓰지 못했다고, 뽕나무 순은 작년 봄에 뜬어서 냉동실에 넣어두었던 것이니 먹고 한 해 내내 건강 하라고, 시루팥떡은 올해 처음으로 집에서 시루에 찐 것이니 자기의 성의를 봐서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으라고, 뼈가 부러져 핀을 박고 여러 날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는데 두서너 달이 지나야 깁스를 풀 수 있어서 한참 불편할 거라고, 불편하긴 해도 죽을 병 걸린 것이 아니니 걱정 말라며 소리 내어 웃었다.

팔이 아파서 선물 보내는 걸 망설이다가 봄나물을 꼭 주고 싶어서 편지 없는 소포를 보냈지만 기도는 빠지 않았단다.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한 번도 그 친구의 생일을 챙긴 적이 없는 나로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도 찡하고, 행복하기도 했다.

세상에는 주기만 하는 사랑도 있고 받기만 하는 사랑도 있다. 나는 평소에 주는 사랑이든 받는 사랑이든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주기만 한 적이 있었던가. 지나온 내 삶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아직 잊는도 트지 않은 추운 날씨에 싱그러운 봄나물을 받고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TV에서 본 행복 도시락을 꾸려서 팔을 다친 친구에게 보내주고 싶지만 아들의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데다 천성이 게으른 나로서는 마음만 간절할 뿐이다.

이듬해 봄에 먹기 위해 뜯어서 저장해둔 묵나물로 보름나물을 대신하는 친구의 지혜가 놀랍다. 이 나물에 당근을 채 쳐서 볶은 것과 고사리를 곁들이면 얼마나 화려한 비빔밥이 될까... 간장에 쪽파를 송송 썰어 넣고 참기름과 고춧가루를 넣은 뒤 통깨를 듬뿍 넣으면 훌륭한 맛의 양념장이 똑딱 완성된다. 기호에 따라 달걀지단을 채 썰어 고명으로 얹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은 없는 것 같다. 나물 비빔밥은 보기에 좋지만 영양의 균형도 만점이다. 여기에 따끈한 된장국을 스스스하게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다.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비빔밥을 만들어 남편과 함께 식사를 했다. 당신은 친구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남편의 칭찬이 싫지 않았다. 나물의 선명한 초록빛이 오히려 꽃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식탁에 이른 봄이 찾아온 것만 같았다. 한 해 전부터 봄을 준비한 마음도 귀하지만, 아직 추운 날씨에 싱그러운 봄맛이를 하게 해준 친구가 눈물 나게 귀하고 고마웠다. 사랑이나 고마움의 마음을 알콩달콩 표현하지 못하는 나의 성격이 야속하긴 하지만, 내 속에 숨어 있는 사랑과 고마움의 마음을 그 친구는 알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드러나는 마음보다 드러나지 않는 마음이 더 크고 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느끼며 산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먹을거리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중 첫 번째로 꼽아도 부족하지 않을 듯하다. 특히 뽕나무 순은 요즈음 최상의 대우를 받는 건강식품이니 올 한 해 우리 가족 건강의 실마리를 친구가 장만해준 셈이다.

